



## 이기동의 영어 형용사 연구: Basic. 이기동 저

---

저자            이성하  
(Authors)

출처            [담화와인지 22\(2\)](#), 2015.08, 171-174 (4 pages)  
(Source)        [Discourse and Cognition 22\(2\)](#), 2015.08, 171-174 (4 pages)

발행처         [담화·인지언어학회](#)  
(Publisher)     The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15089>

APA Style      이성하 (2015). 이기동의 영어 형용사 연구: Basic. 이기동 저. 담화와인지, 22(2), 171-174.

이용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Accessed)     203.232.238.195  
                     2015/11/28 10:39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  
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서평

---

### 이기동의 영어 형용사 연구: **Basic**. 이기동 저

이 성 하  
(한국의국어대학교)

이기동 (2015) 『이기동의 영어 형용사 연구: **Basic**』 서울: 교문사

#### 1. 개관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영어의 기본 형용사를 의미, 구조, 용례에 따라 분석한 책이다. 영어 형용사 중 파생형용사가 아니라 원래부터 형용사로 출발한 것들로서 다양한 뜻을 많이 갖고 있어 통용성이 많은 133개의 형용사 기본어휘를 선정하여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2. 체제와 내용

이 책은 비교적 긴 “머리말”과, 사전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 특정 항목을 쉽게 찾아보기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머리말”, 또한 매우 소상한 설명이 들어 있는 “일러두기”와 able부터 young까지 133개 형용사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여 분석 제시한 단어 해설, 그리고 “참고문헌”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흔히 수험용 서적들에서 볼 수 있는 단어집도 아니고, 단순히 언어숙달도를 높이기 위해 형용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례집도 아니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각 단어의 의미, 구조, 용례를 분

석한 것이기 때문에 각 등재 단어 하나하나가 학술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지언어학적 이론들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하여 “일러두기”가 매우 소상하게 되어 있다. 전체 52쪽에 달하는 “일러두기”의 ‘일반 개요’에서는 단순한 체제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인지언어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인 은유, 환유, 중의성, 동음이의어, 범주, 범주화, 원형,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피수식체, 교체현상, 치수 표현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고, ‘형용사 구조’에서는 형용사의 전치사 구조, 형용사와 to-부정사, 동명사, 종속적, 진행형, 명령문 등의 상호 관계를 집중 조명하고, ‘이 책의 특징’에서는 등재된 항목들의 세부사항인 용어의 정의, 의미와 구조, 의미의 연관성, 용례, 선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일러두기”를 꼭 읽기를 권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일러두기”가 단순한 편집상의 규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잘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사건 도식 또는 형상 도식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인지언어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도식(스키마)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 3. 학술적 기여

이 책은 앞 단락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영어 형용사를 인지언어학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또한 관련되어 있는 문법요소들을 잘 제시하고 있어서, 한 편의 개괄적 인지언어학 논문과, 일관된 체계를 갖춘 133개의 단편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다양한 이론들에서 개별 형용사에 대한 연구들이 간혹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Bolinger 1967, Dixon 1982, Warren 1984, 1988, Taylor 1992, Kytö & Romaine 1997, Paradis 2000, Dixon & Aikhenvald 2006, Hilpert 2008, Kemmerer et al. 2007, 등 다수), 이 책에서와 같이 많은 형용사를 통일된 방식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여 사전, 어휘목록, 이론 분석 논집의 성격을 두루 갖추어, 학습자와 연구자에게 공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것은 국내외에서 최초의 일이라 할 만하다.

특별히 이 책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각 항목을 기술함에 있어서 인간의 인지에서 사물과 사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도식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형용사는 함께 통합축에 나타나는 명사를 피수식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의미와 기능은 피수식체와의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각 항목의 분석에는 피수식체의 다양한 형태통사적, 의미적, 개념적 특성과 화용 현상이 초점이 된다. 이처럼 통일된 방식으로 형용사라는 문법범주 전

체를 분석해 낸 것은 학술적으로 큰 기여라 할 수 있다.

#### 4. 끝맺는 말

최근 출간된 이 책을 접하고, 이 책이 가지는 학술적인 가치와 영어학, 더 나아가 언어학에 대한 기여를 생각하면서, 다른 학자들에게 이 책의 출간을 알리고 함께 축하하며, 또 아울러 이 연구의 결실을 저자의 여러 동료와 후학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쓰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본 서평자가 이 책에 대해 서평을 쓰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공부를 본업으로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귀한 책의 출간을 기뻐하는 학자적인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언어학계의 거목과 같은 선배 학자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문에 대해 보여 주신 열정에 대한 개인적인 감격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는 그동안 많은 저서와 역서, 그리고 100여 편에 이르는 인지언어학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에서의 인지언어학 분야에서 선구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거동도 할 수 없고 시력에 문제가 있어 글도 읽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직접 눈과 손이 되어 주신 사모님의 내조에 힘입어 10년 여에 걸쳐 준비해 온 이 저서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학자적 열정과 사모님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격 그 자체이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학자의 역할을 잘 해 내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목차편의 맨 뒤에 있는 “이기동의 영어 형용사 연구 Advanced편” 등재항목 166개가 실려 있다. 건강 때문에 한편 조심스러우면서도 이 고급수준의 형용사 연구서가 또 빛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참고문헌

- Bolinger, Dwight. 1967. Adjectives in English: Attribution and predication. *Lingua* 18: 1-34.
- Dixon, Robert M.W. 1982.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Berlin: Mouton Publishers.
- Dixon, Robert M.W. and Alexandra Y. Aikhenvald (eds.) 2006.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lpert, Martin. 2008. The English comparative: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use.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3: 395-417.
- Kemmerer, David, Christine Weber-Fox, Karen Price, Cynthia Zdansczyk, & Heather Way

2007. Big brown dog or Brown big dog? An electrophysiological study of semantic constraints on adjective order. *Brain and Language* 100: 238-256.
- Kytö, Merja & Suzanne Romaine. 1997. Competing forms of adjective comparison in Modern English: What could be more quicker and easier and more effective? In: Matti Rissanen, Terttu Nevalainen, & Leena Kahlas-Tarkka (eds.), *To Explain the Present: Studies in the Changing English Language in Honour of Matti Rissanen*. Helsinki: Société Néophilologique. 329-352.
- Paradis, Carita. 2000. Reinforcing adjectives: A cognitive semantic perspective on grammaticalization. In: Ricardo Bermúdez-Otero, David Denison, Richard M. Hogg & Chris B. McCully (eds). *Generative Theory and Corpus Studies*. Berlin: Mouton de Gruyter, 233-258.
- Taylor, John R. 1992. Old problems: Adjectives in cognitive grammar. *Cognitive Linguistics* 3: 1-35.
- Warren, Beatrice. 1984. *Classifying Adjectives*. Gothenburg Studies in English 56. Gothenburg, Sweden: University of Gothenburgh Humanities Press.
- Warren, Beatrice. 1988. Ambiguity and vagueness in adjectives. *Studia Linguistica* 42: 2, 122-172.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학과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E-mail: srhee@hufs.ac.kr